

44. 甲국의 명목GDP는 450, 실질GDP는 150, 요구불예금은 200, 현금통화비율은 0.5일 때, 甲국 경제의 물가 수준과 화폐유통속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물가 수준은 GDP 디플레이터이고, 현금통화비율은 요구불예금 대비 현금 비중이다)

	물가 수준	화폐유통속도
①	200	1
②	200	2
③	300	3
④	300	1
⑤	400	3

44. **정답** 정답없음 (전체 정답 처리)

[출제포인트] 통화시장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물가수준은 '명목GDP/실질GDP×100'으로 도출된다. 따라서 물가수준은 300이다.

화폐유통속도(V)는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MV=PY$  (이 때 PY는 명목GDP)이다.

통화량은 '현금통화+요구불예금'으로 도출된다. 그리고 현금통화는 '요구불예금×현금통화비율'로 도출된다. 요구불 예금이 300, 현금통화비율이 0.5이므로 현금통화는 150이며 따라서 통화량은 300+150=450이다. 따라서 화폐유통속도는 1이다.

46. **정답** 정답없음 (전체 정답 처리)

[출제포인트] 수요의 가격탄력성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frac{\partial Q_K}{\partial P_K} \times \frac{P_K}{Q_K} = 5 \times \frac{P_K}{100 - 5P_K}$  이므로  $P_K = 15$ 인 경우 3으로도출된다.

50. 다음은 A기업의 한계생산물과 비용을 나타낸다.  $w = 100$ ,  $r = 100$ 인 경우, 최대산출량을 가져다주는 노동과 자본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L$ 은 노동,  $K$ 는 자본,  $w$ 는 임금,  $r$ 은 자본의 임대료이다)

- 노동의 한계생산물:  $MP_L = 100K - 90L$
- 자본의 한계생산물:  $MP_K = 100L - 45K$
- 비용:  $wL + rK = 2,000$

	노동	자본		노동	자본
①	20	10	②	17.5	12.5
③	15	15	④	12.5	17.5
⑤	10	20			

50. 정답 ⑤

[출제포인트] 노동시장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비용은  $100L + 100K = 2,000$ 로  $L + K = 20$ 이를  $w = MP_L$ 에 대입하면

$100 = 100(20 - L) - 90L$ 이므로  $L = 10$ 이다.

한편  $r = MP_K$ 에 대입시  $100 = 1000 - 45K$ 이므로  $K = 20$ 이다.

63. 정답 없음 (전체 정답 처리)

[출제포인트] 쿠르노 균형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쿠르노 균형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 기업의 반응곡선을 먼저 구해야 한다.

■ 기업 A의 반응곡선

$$\begin{aligned}\pi_A &= TR_A - TC_A = PQ_A - (40Q_A + 10) \\ &= [120 - 2(Q_A + Q_B)]Q_A - 40Q_A - 10 \\ &= 120Q_A - 2Q_A^2 - 2Q_BQ_A - 40Q_A - 10\end{aligned}$$

$$\text{따라서 } \frac{\Delta\pi_A}{\Delta Q_A} = 120 - 4Q_A - 2Q_B - 40 = 80 - 4Q_A - 2Q_B = 0$$

기업 A의 반응곡선은  $Q_A = 20 - \frac{1}{2}Q_B$ 이다.

■ 기업 B의 반응곡선

$$\begin{aligned}\pi_B &= TR_B - TC_B = PQ_B - (40Q_B + 10) \\ &= [120 - 2(Q_A + Q_B)]Q_B - 40Q_B - 10 \\ &= 120Q_B - 2Q_B^2 - 2Q_AQ_B - 40Q_B - 10\end{aligned}$$

$$\text{따라서 } \frac{\Delta\pi_B}{\Delta Q_B} = 120 - 2Q_A - 4Q_B - 40 = 80 - 2Q_A - 4Q_B = 0$$

기업 B의 반응곡선은  $Q_B = 20 - \frac{1}{2}Q_A$ 이다.

두 기업의 반응곡선을 연립으로 해서 풀게 되면  $Q_A = Q_B = \frac{40}{3}$ 이 된다. 따라서 두 기업의 생산량의 합인 시장 전체

생산량은  $Q^* = Q_A + Q_B = \frac{80}{3}$ 이다. 그리고 시장 가격은  $P^* = \frac{200}{3}$ 이다.

66. **정답** ② ③ (복수 정답 처리)

[출제포인트] 필립스곡선과 총공급곡선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문제에서 제시된 필립스 곡선은 단기 필립스 곡선이다. 따라서  $\pi \neq \pi^e$ 인 상황이다. 만일 장기에  $\pi = \pi^e$ 이 성립하게 되면 필립스곡선은 완전고용산출량 수준인 자연실업률수준에서 수직의 형태가 된다. 그런데 단기이기 때문에 단기필립스 곡선은 우하향하는 형태가 되고 기대인플레이션( $\pi^e$ )이 상승하게 되면 단기필립스곡선은 상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 ① 식을 정리하면  $\Delta\pi = -0.5(\Delta u)$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2%p 낮추기 위해서는 실업률은 4%p 증가하게 된다.
- ② 고용이 완전고용수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u > u_n$ 이 성립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pi < \pi^e$ 인 과대기대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④ 단기의 상황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총수요충격이 발생하는 경우에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상충관계를 보이게 된다.
- ⑤ 총공급곡선이 수직선인 경우에는 장기의 상황으로  $\pi = \pi^e$ 인 경우 장기필립스 곡선이 수직이 되고, 이때 장기총공급 곡선도 수직이 된다.

74. 인플레이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일반적으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채무자가 손해를 본다.
- ② 먼델-토빈(Mundell-Tobin) 효과란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인한 실질이자율의 하락과 투자의 증가를 말한다.
- ③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은 수요견인설에 의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비롯된다.
- ④ 중앙은행이 정부의 대규모 재정적자에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 ⑤ 실질화폐잔고에 대한 수요가 명목이자율에 의존하고 현재의 통화공급은 고정된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현재의 물가수준도 낮아진다.

74. **정답** ② (전체 정답 처리)

[출제포인트]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 ①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채권자가 손해를 본다.
- ② 먼델-토빈(Mundell-Tobin) 효과란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인한 실질이자율의 하락과 투자의 증가를 말한다.
- ③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은 공급견인설에 의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비롯된다.
- ④ 중앙은행이 정부의 대규모 재정적자에 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 ⑤ 실질화폐잔고에 대한 수요가 명목이자율에 의존하고 현재의 통화공급은 고정된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을수록 현재의 물가수준도 높아진다.

75. 소비자물가지수(CPI)와 GDP 디플레이터 (GDP deflator)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ㄱ) CPI는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진 재화 대신 가격이 낮아진 재화를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반영한다.
- (ㄴ) 파셰지수의 성격을 가지는 GDP 디플레이터는 재화 및 서비스 가격에 변화하는 가중치를 사용하여 도출되지만 라스파이레스 지수의 성격을 지는 CPI는 고정된 가중치를 사용한다.
- (ㄷ) 해외 생산되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가격의 인상은 GDP 디플레이터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CPI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 (ㄹ) 경제 내에 새로운 상품이 도입되면 화폐의 실질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CPI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ㄷ)                          ④ (ㄴ), (ㄹ)
- ⑤ (ㄷ), (ㄹ)

75. **정답** 정답없음 (전체 정답 처리)

[출제포인트] 거시경제변수 [난이도] ★★ [중요도] ★★★  
[해설]  
(ㄱ), (ㄴ), (ㄹ) CPI는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진 재화 대신 가격이 낮아진 재화를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 라스파이레스 지수의 성격을 지닌 CPI는 고정된 가중치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경제 내에 새로운 상품이 도입되면 화폐의 실질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CPI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반면에 파셰지수의 성격을 가지는 GDP 디플레이터는 변화되는 가중치를 사용한다  
(ㄷ) 해외 생산되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가격의 인상은 CPI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GDP 디플레이터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GDP 디플레이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 및 서비스에 국한되기 때문이다.